

## 타이포그래피 기초교육 방법론 1:

"옛한글 소재를 오늘의 감각으로 조형한다." - 에이·씨·피

acp: ahn craig project

안상수 ahn sang-soo (홍대 미대 시각디자인과 hong-ik univ., graphic design dept.)

중심어: acp, 한글 타이포그래피 교육

keywords: ahn craig project, hangul typography education

---

### 개요

시각디자인과 2학년 1학기 <타이포그래피 2> 과정이며, 선행 과목: 1학년 2학기의 <타이포그래피 1>의 후속 과정. 이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홍대 시각디자인과와 미국 뉴욕 쿠퍼 유니온Cooper Union 대학의 타이포그래피 공동 교육 진행 과정이다. (쿠퍼 유니온 측 담당교수: 제임스 크레이그 james craig) 쿠퍼 유니온 대학은 영문자를 재료로, 홍대 측은 한글을 매체로 삼아 역사의 맥락 속에서 현대적 타이포그래피 표현의 가능성과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타이포그래피 과제 표현 결과물을 서로 교환하여 비교 전시, 서로 다른 문화 비교를 통한 디자인 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있다.

### 과제 목표:

- 한글꼴의 역사성 탐구.
- 낱쪽의 조형적 구성력을 익힘.
- 인쇄 과정 습득.
- 컴퓨터 표현 기술 습득.
-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가능성 모색.
- 영어 문화권과의 비교

### 과제 수행 순서

1. 먼저 한글의 조형 원리와 각 자음과 모음에 대한 연구를 주로 문헌 조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적인 참고서적을 예시한다. 참고서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글길> <훈민정음 연구> 등의 이론서이며,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 <오륜행실도> 등 고서 원본 혹은 영인본들. 기간은 대한제국 시대까지.

#### 2. 쪽자 보고서 작성

- 2.1. 한글 28자의 쪽자 중 하나를 선택.
- 2.2. 옛 활자본이나 필사본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쪽자를 고른다.
- 2.3. 선택한 쪽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한다. A4 1쪽. 반드시 컴퓨터로.
- 2.4. 보고서에는 선택한 쪽자의 아이콘icon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3. 쪽자 다듬기

- 3.1. 선택한 쪽자를 스캔 받은 후 컴퓨터 드로잉 툴로 외곽선을 딴 후 형태를 다듬는 과정.
- 3.2. 이 때 글자의 최대한 옛스러운 맛을 살림.

#### 4. 낱쪽 구성 page layout

- 4.1. 많은 아이디어 스케치 종용.

#### 4.2. 세가지의 레이아웃 방향.

- 4.2.1. 쪽자 위주
- 4.2.2. 제목 위주
- 4.2.3. 본문 위주

#### 4.3. 위의 세 가지 레이아웃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진행한다.

#### 5. 인쇄 표현 기법 탐구

5.1. 이 경우 인쇄기법은 아직 익하지 않은 상태이나 선배들의 인쇄학 노트나, 기 발간 인쇄 참고서적을 참조하여 진행시킨다. 사실 인쇄 기법 면에서는 학생들의 경험 상 무리가 따르나 이내 극복이 됨.

5.2. 망점의 변화 주지 시킴. 망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표현을 유도.

5.3. 2도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이 두 색깔의 혼합 표현 가능.

#### 6. 인쇄 원고 만들기, 제판 명세 지정

#### 7. 담당 교수의 최종 점검 후 필름 분판 출력

8. 필름출력 > 인쇄소 > 교정쇄 > 점검. 수정 > 필름 출력 > 인쇄소 > 교정쇄 > 교정 > 오케이 >

#### 9. 인쇄 > 재단 > 제본

제본은 강의가 끝나는 날 학생들이 직접 하며,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 평가를 받는다.

#### 10. 제작 명세

10.1. 크기: 250x250mm.

이 비례를 택한 것은 정사각형이 레이아웃에서 틀의 영향을 안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2. 사용 소프트웨어: 꽉 익스프레스,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아도비 포토숍, 폰토그라퍼 외

10.3. 인쇄 방식: 오프셋 인쇄

10.4. 인쇄 수량: 200부

10.5. 색도: 2도 (먹과 벌색 pantone warm red C 2X)

#### 과제 결과에 대한 분석, 기대 효과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부리는 예술이자 기술이며, 결국 타이포그래피란 활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이다. 한글은 우리 글자이며, 한국 문화의 표상이자 상징이다. 그러므로 한글은 우리 문화 유산 중 가장 독창적인 것이라서, 한국 디자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믿는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란 한글을 통해 의도된 정보 내용을 예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디자인임을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들에게 반복해서 주지시킨다. 또한 한글이 갖는 특성을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난 영문 문화권의 같은 세대들의 결과물로 인해 수강자들은 서로 스스로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결국 시각디자인이란 타이포그래피의 땅 위에서 크는 나무이기에, 토양이 척박하고 얕으면 나무는 옮겨 자라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느끼게 된다. 이율리 외국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는 한글 문화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대 세계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공식적 이해는 물론, 시각디자인의 요체로서 역사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통시적 학습을 유도한다.

대부분 수강자들은 수강 전 한글이 갖는 문화적 부가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영문에 대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조형적 우수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한글에 대한 수강자 스스로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게 된은 물론, 한국적 디자인의 모태가 한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만 한글에 대한 형태적인 스터디가 그 내용에 대한 철학적 이해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여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다.



